

# 장수·군산·전주에 특수학교 설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화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에 들어서는 동부신약권 특수학교를 비롯해 올해 전주, 군산 등 3개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수군 계획면에 들어서는 동부신약권 특수학교는 10학급(70명) 규모로,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는 동부권에 설립되는 첫 번째 특수학교로 그동안 전주·남원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오던 해당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자립 기반까지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군산의 특수학교는 옛 대야초 광산분교장 부지에 조성된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2학급 등 총 21학급(136명)규모다.

이 학교가 설립되면 특수교육대상학

전북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받을 권리 보장 만전

2024년 특수학급 편성 기준도 개선... 올해 61개 특수학급 늘어



전북자치도교육청이 23일 특수학교 확충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생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명화학교의 과대·과밀학급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옛 전주자립원 부지에 18학급(132명) 규모로 설립되는 (가칭)전주보통학교는 직업중점형 특수학교로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다. 휴

먼서서비스학과, 외식서비스학과, 농생명화학공학과 등 직업중점형 학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특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일대에는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고용교육연구원이 함께 들어설 예정으

로 전국 최초의 고용·복지, 교육 연계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김제·부안 등 서부권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부지가 확정되고 교육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자체투자 심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도 대폭 늘어난다. 2024학년도 특수학급 배정 결과 유치원 12학급, 초등학교 22학급,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6학급 등 전년보다 61개 학급이 증가한다.

이는 특수 학생이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도록 했던 기존 특수학급 편성 지침을 올해부터는 대상 학생이 1명만 있어도 신·증설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배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특수학교의 균형적 배치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지난 23일 본교를 방문한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일로바(Aida Ismailova) 대사를 접견, 양국 간 고등교육 및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유학생 5000명 유치 협력 강화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협력 논의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통한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키르기스공화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지난 23일 본교를 방문한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일로바(Aida Ismailova) 대사를 접견, 양국 간 고등교육 및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인재개발 전문 비즈니스 기업인 (주)페이퍼스 그룹의 민병도 대표가 참석해 키르기스공화국 주요 대학들과의 협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양 총장과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키르기스공화국에 전북대학교 국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 다음 주 예정돼 있는 키르기스공화국 방문 시 진행될 키르기스공화국 교육부장관 접견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양오봉 총장은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관은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 이전부터 우리대학을 지지하며 키르기스공화국의 대학과의 협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나눔 키르기스공화국을 직접 방문해 교육부장관과 우리대학에 관심이 많은 교육기관을 만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글로벌 인재 양성 '손 맞잡다'

국립군산대, 라오스국립대와 협약... 학생교류 확대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24일 라오스국립대학교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임기욱 학생처장(사회봉사센터장)이, 라오스국립대학교는 Oudom Phonekchampheng 총장, 국제교류처장, 학생처장, 어문학부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원 및 학생교

류 △연구협력 △학술자료 및 과학적 정보교류이며, 양국은 복수학위제 운영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Oudom 라오스국립대 총장은 "라오스국립대는 라오스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로 라오스의 고등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국립군산대와 학생교류 등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 분야 혁신·창의적 콘텐츠 제작 선도

전주대, '시너지 랩' 착공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4일 진리관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혁신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선도할 'C-nergy Lab(시너지 랩)'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너지 랩'은 전주대가 콘텐츠 융복합 교육과정의 실현과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축하는 공간으로, 전북지역에 창의적 콘텐츠 창작기지를 구축하는 첫 발걸음으로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는 리본커팅을 시작으로 시너지 랩 소개와 설계 개요 안내, 공간 및 구축 첨단 시설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시너지 랩의 'C'는 콘텐츠, 코퍼레이션, 컬렉티브, 플랫폼 등 콘텐츠 융복합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며, 'Energy'는 창의적인 기획과 협업을 이뤘을 때 에너지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이번에 새로 구축되는 공간에는 대학과 기업 간 소통과 아이디어 교류가 이루어질 네트워킹 라운지, 콘텐츠 창작 강의를 이룰 창작스튜디오, 전문가용 데스크톱과 태블릿 일체를 갖춘 제작 스튜디오, 그



전주대학교는 24일 진리관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혁신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선도할 'C-nergy Lab(시너지 랩)' 착공식을 개최했다.

리고 국제표준 인증 시스템을 갖춘 VR-사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회의가 가능한 프로젝트룸 등이 들어선다.

전주대학교 권수태 사업단장은 "시너지 랩을 통해 전주대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문콘텐츠대학장 안정훈 교수는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은 8개의 글로벌 문화콘텐츠 분야 마이크로 전공을 신설해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너지 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한 인문학 콘텐츠 기획·생산하는 등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융복합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LINC 3.0 사업 발전 방안 모색... 우석대, 지산학 협력 교류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와 협약 체결

산학협력 활성화 기술 공유

우석대학교가 지·산·학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LINC 3.0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랜드볼라에서 열린 지·산·학 협력 교류회는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주최하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Biz) 전북연합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했다.

이날 교류회에는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과 김종석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장,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안주균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는 업무협약을 체결, 산학협력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주최하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Biz) 전북연합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하는 지·산·학 협력 교류회가 지난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랜드볼라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한 상호 운영체계 구축과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또 성과 창출을 이어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초등교사 역량강화 연수

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 실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2~24일 2차 3일간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초등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초등 학생평가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초등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80여 명이 초등학생들의 고차적인 사고력 함양을 위한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 실습에 참여한 것.

올해부터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2학년도를 포함해 3~6학년의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습 지도법을 구성해 서·논술형 문항을 설계하는 교육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채점기준과 피드백을 제시해 평가 문항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학생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학생평가 분야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김선 교수와 반재천 교수를 중심으로 도내 초등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8명이 실행 강사로 참여해 연수의 전문성을 높였다.

한편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후 과목별 및 학년별로 평가문항개발팀을 구성, 학생평가 지원단으로서 지속적인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